

##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

정 성 진

Chang-Ho C. Ji

서 경 현<sup>†</sup>

김 신 섭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La Sierra University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주관적 웰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374명의 대학생들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22.54(SD=4.79)세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I/E-R 종교지향척도, 종교적 원리주의척도, 영적안녕척도, 정서빈도검사, 삶의 만족척도, 주관적 행복척도, 삶의 동기척도 및 삶의 기대척도이다. 분석 결과, 종교를 가진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종교적 안녕을 더 경험하고 있었지만 주관적 웰빙 수준은 더 높지 않았다. 대학생의 종교지향은 영적 안녕은 물론,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 긍정정서 등과 같은 웰빙 변인과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종교지향이 주관적 웰빙 변인과 공변하는 부분은 4~6%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영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삶의 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의 주관적 웰빙 변인과 종교지향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약한 대학생의 경우 종교지향이 수준에 따라 주관적 웰빙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 종교지향이 수준이 강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실존적 안녕 수준이 높고 긍정정서나 행복감을 더 느끼고 삶을 만족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와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런 결과는 종교 관련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웰빙, 행복, 삶의 만족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Tel : 02-3399-1676, E-mail : khsuh@syu.ac.kr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5)에서 한국의 종교 인구는 53.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청소년의 80%가량이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하고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종교 인구의 비율은 한 동안 크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다(문화관광부, 1997). 인구조사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성장하면서 부모, 형제, 친구 등을 통해 종교적인 내용을 접하여 종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Jung(1875~1961)은 영적인 것을 추구 하는 성향 혹은 종교성이 인간 내면에 존재한다고 믿었으며(김성민, 1998), 어떤 심리학자들은 영성 혹은 종교성이 인간 의식의 기본 구조로서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고 주장한다(Wilber, 1997).

인간의 적응과 관련하여 종교성은 이미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Crawford, 1989; Frankl, 1967), 미국심리학회 윤리 강령에서도 종교 변인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APA, 1992). 특히, 미국심리학회의 36분과에 속한 심리학자들은 종교와 관련된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Nielsen, Johnson, & Ellis, 2001).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하였지만(Brannon & Feist, 2000). 건강을 정의하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 더해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서경현, 전경구, 2004; 전경구, 정봉도, 김영환, 2000). 그러나 그런 논의에 앞서 인간의 종교성(religiosity)이나 영성(spirituality)이 과연 개인의 적응이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은 개인의 적응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atson, Schoenrade, & Ventis, 1993; Donahue, 1985; Kirkpatrick, 1997; Pargament, 1977). 미국의 전국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Chatters et al., 2008)에서도 종교적 참여가 기분장애와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예배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 받는 비율이 낮았다. 종교성과 웰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 중에는 웰빙 변인으로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웰빙 혹은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채택한 연구가 다수였는데(예: Maltby, Lewis, & Day, 1999), 인간의 적응 혹은 기능 차원의 심리적 웰빙을 중심으로 수행된 일련의 실증연구들에서는 종교성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Hathaway & Pargament, 1990; Lea, 1982; Peterson & Roy, 1985; Ross, 1995). 하지만, 정신병리적 효과를 보인 경우도 있었고(Rosenstiel & Keefe, 1983), 건강 효과와 병리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Andreasen, 1972; Bergin, 1983).

Bergin(1983)이 메타분석을 통해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더니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이 나타났다. 종교지향이 강한 사람들이 적응적인 집단과 부적응적인 집단으로 양분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가 종교성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를 검증한 24개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더니 그 효과의 크기가 -.32에서 +.82까지였다. 그런 연구들 중 23%에서 종교가 심리적 건강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47%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각기 다른 척도들을 사용했다는 점과 양자 간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종교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dreason(1972)은 종교를 양날을 가진 칼로서 묘사하면서, 종교지향이 강할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즉 안녕감이나 행복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Piedmont & Moberg, 2003). 56개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Witter, Stock, Okum, & Haring, 1985)에서는 종교성이 주관적 웰빙과 정적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계수가 .14에서 .25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인 간에 공변하는 부분이 2%에서 6%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성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개념의 복잡성과 측정의 문제로 보는 견해(Chamberlain & Zike, 1989; Steinitz, 1980)와 두 변인의 관계가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Veenhoven, 1994). 종교에 대한 몰입이나 헌신의 정도와 종교가 사회지원의 역할을 하는지가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Ellison, 1991), 종교적 추구의 이유가 사회지원 때문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재된 종교성 때문일 때 행복과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Argyle, 2001; Argyle & Hills, 2000).

Idler(1987)는 종교성이 인간의 웰빙이나 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로 설명한다. 첫 번째 가설은 종교적 사회망을 통한 사회지원이 인간을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웰빙을 유도한다는 사회적 응집성 가설(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이다. 이 가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Ellison(1991)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종교적 사회지원에는 정서적 지원이나 인지적 지원은 물론이고 더 실질적인 행동적 지원도 포함된다. 두 번째 가설은 종교가 낙관적 관점을 가지게 하고 운명론적 관점을 논박함으로써 심리적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일관성 가설(coherence hypothesis)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교가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지각하게 하여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희석시킴으로써 심리적 건강과 웰빙을 도모한다는 호신론적 가설(theodicy hypothesis)이다. 종교와 정신건강 혹은 웰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은 이것만이 아니다.

Peterson과 Roy(1985)은 종교가 개인에게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응 또는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들은 종교가 웰빙이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직접적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고 삶에서의 의미감과 충족감을 확장시키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라고 주장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Pollner(1989)는 종교가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자기효능감은 물론 실제 해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정체감과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공함으로써 낙담시킬 수 있거나 공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융통성 없고 편견을 가진 절대적 종교성은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을 낳는다는 주

장이 있다(Hunsberger, Alisat, Pancer, & Pratt, 1996). 정서적·합리적 행동치료를 세상에 소개한 Ellis(1980)는 Bergin(1980)의 “심리치료와 종교적 가치관”이란 논문에 대한 반론으로 “심리치료와 무신론적 가치관”이란 논문을 그 해 같은 저널에 게재하며 종교성이 개인의 웰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Ellis, 1986).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2000년에 그는 종교성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웰빙에 도움이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였다(Ellis, 2000). 하지만 Ellis는 종교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대적인 자기 패배적 신념이 인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웰빙을 방해한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정신건강의 유해 가능성이 종교에 있지만 자기 패배적 신념을 논박할 수 있는 요소도 종교가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Allport(1954)도 종교의 역할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어서 편견을 만들기도 하고 편견을 없애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p.444).

유통성의 부재나 편견과 관련된 종교적 개념으로는 원리주의 혹은 근본주의(fundamentalism)가 있다. 극단적인 종교적 원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원리주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그런 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지만, 종교적 원리주의의 일반적인 정의는 현대적인 것에 대한 종교적 반발을 의미하는 것이다(Armstrong, 2001).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 개념에 관해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 Altemeyer와 Hunsberger(1992)는 Allport (1954)가 이야기하는 종교에서의 편견을 “종교적 원리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를 “인류와 신성에 관한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적이며 내적이고 본질

적인 것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는 확실한 진리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의 신념으로서, 이 본질적 진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악의 힘에 근본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현재에도 과거와 변함없이 원리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신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런 종교적 원리주의가 종교성과 웰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Hunsberger 등(1996)과 Ellis(2000)가 가정한 것 외에도 종교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다른 가설들(Idler, 1987; Peterson & Roy, 1985; Pollner, 1989)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 혹은 타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회적 응집성과도 종교적 원리주의가 관련 있을 수 있으며, 원리주의적인 믿음은 세상에 대한 관점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의 변인으로 종교지향을 채택하였다. 일찍이 Allport(1950)는 종교성을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누어 종교성을 가진 집단을 각각 “진심으로 경건한(devout)” 신앙인과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institutional)” 신앙인으로 표현하였다. 현재 종교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내적으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과 외적으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다(Altemeyer & Hunsberger, 1992). 이런 요인구조는 실증적으로도 검증되었다(Donahue, 1985). 내·외적 종교지향 외에도 종교지향에는 추구적(quest) 종교지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tson & Ventis, 1982). 추구적 종교지향은 실존적 의문에 대한 해결 의지와 변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반영하는데 이런 개념이 실증적으로 지지되었지만(Burris & Jackson, 2000), 본 연구의 목적 상 변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내적 종교지향은 종교 자체가 목적으로서 다른 어떤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여 자체가 이유가 되어 신앙을 하는 반면에, 외적 종교지향은 내적 지향보다 동기의 섬세함이 부족하여 종교적 관여가 구체적인 실용성에 근거한다(Allport & Ross, 1967). 외적 종교지향은 개인적 안락이나 사회적 이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Kirkpatrick, 1989). Allport와 Ross(1967)는 내적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적은 반면에 외적으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다.

본 연구에서는 웰빙 변인으로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채택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만족과 긍정/부정 정서, 주관적 행복 등 보통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삶의 만족의 경우 인지적 평가를, 정서는 경험의 빈도 혹은 양을 반영하여, 부정 정서는 덜 경험하면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웰빙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김정호, 2007).

김정호(2006)는 웰빙을 스트레스의 반대 개념으로 보고 동기충족과 동기충족예상으로 정의하면서 동기충족, 즉 삶의 만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기충족예상, 즉 삶의 기대를

웰빙의 주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정호 외, 2009). 또한 그는 삶의 기대가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및 주관적 행복과는 정적 상관이 있고 부정 정서는 물론 웰빙의 반대 개념인 우울과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주관적 웰빙의 요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김정호, 2007). 그의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동기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삶의 기대가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부정 정서나 우울을 경험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웰빙관련 변인으로서 삶의 기대가 가진 특수성을 시사한다. 그는 또한 동기의 수준도 웰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학습된 무기력 등에 의해 낮아진 동기 수준은 웰빙의 반대개념의 하나인 우울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Seligman, 1975). 동기는 행동의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지만(Reeve, 2005), 웰빙 차원에서 볼 때 동기는 “목표를 획득 혹은 유지 하고자 하는 소망이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호, 2000).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뿐 아니라 삶의 기대, 더 나아가 삶의 동기까지 웰빙 관련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종교가 낙관적 관점을 가지게 하여 인간을 웰빙하게 한다는 Idler(1987)의 일관성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의 동기와 기대는 만족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 변인으로 영적 안녕을 포함시켰다. 웰빙을 스트레스의 반대 개념으로 볼 때 일련의 선행연구(서경현, 전경구, 2004; 전경구 외, 2000)에서 영적 안녕이 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여 인간의 웰

빙에 영적인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 가운데 종교지향과 영적 안녕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통해 영적 안녕 중에 실존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의미감과 충족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간의 웰빙에 관여한다는 Peterson과 Roy(1985)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종교지향이 그들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종교지향 하위변인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영적 안녕의 하위변인, 삶의 동기 및 기대, 주관적 웰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탐색하였다. 이런 시도는 궁극적으로 종교성이 인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교의 374명(남성 136명, 여성 23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57세( $M=22.54$ ,  $SD=4.79$ )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들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85명(49.5%)이었고, 132명(35.3%)이 기독교인(개신교인), 38명(10.2%)이

천주교인, 14명이 불교도(3.7%)라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명(1.3%)이었다. 한편, 주요 분석은 종교를 믿고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 중에 44명(11.8%)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77명(20.6%)은 일주일에 한 번, 23명(6.1%)은 한 달에 두세 번, 41명(11.0%)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나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189명(50.5%)의 학생들은 예배나 법회에 전혀 가지 않는 학생이었다. 이들 중 239명(64.2%)의 학생이 종교가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 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통계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t검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 및 단순주효과 분석을 위한 변량분석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두 변인의 교차 항을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변인의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값으로 교차 항을 만들었다. 단순주효과 분석을 위해 종교지향이나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은 중앙치로 나누었다.

### 측정 도구

#### 종교지향

참여자의 종교지향은 Gorsuch와 Mcpherson(1989)이 개정한 I/E-R(Intrinsic/Extrinsic-Revised)로 측정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Gorsuch와 Venable(1983)이 종교지향척도를 모든 연령대에서 사

용 가능하도록 개정판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내적 종교지향(I: 8문항)과 외적 종교지향(E: 6문항)을 측정하는데, 이론적으로 외적 종교지향에는 두 가지 범주, 즉 사회적 종교지향(Es: 3문항)과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종교지향(Ep: 3문항)이 포함된다. Gorsuch와 McPherson의 요인분석에서도 세 가지 요인(I, Es, Ep)으로 수렴되었다. 원래 척도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9점(1: 전혀 그렇지 않다 ~ 9: 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종교지향 문항 중에 세 문항은 종교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문항이기 때문에 역환산하였다. 척도를 변안하는 과정을 기술하면, 첫 번째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변안을 한 후 영어권 국가에서 교수로 있는 두 번째 연구자가 점검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에게 감수를 의뢰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변안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척도 개발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1의 경우 .83으로 양호했지만, Es와 Ep는 각각 .58과 .57로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종교지향은 .77이었고, Es와 Ep가 .86과 .89로 오히려 외적 종교지향(.86)이 더 양호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 종교적 원리주의

대학생의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은 Altmeyer와 Hunsberger(1992)가 개발한 종교적 원리주의 척도(The 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종교적 생각이나 관념을 원리주의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며, 그것을 진리로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5점으로 평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4 = 강하게 반대한다 ~ 4 = 강하게 동의한다)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10문항은 종교적 원리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역환산 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신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지키면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지침을 주었다”와 “각기 다른 종교와 철학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모두 동등하게 옳다고 할 수 있다(역환산문항)” 등이 있다. 척도 변안의 과정은 종교지향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20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영적 안녕

영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Ellison(1983)의 영적 안녕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한 한국판 영적 안녕 척도(전경구 외, 2000)의 문항 중에 일부를 제거·추가하고 수정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 안녕(10문항)과 실존적 안녕(10문항)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기독교 외의 종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God’라는 단어를 ‘신(부처)’라고 수정한 것이다. Ellison(1983)의 연구와 서경현과 전경구의 연구(2004)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에서 실존적 안녕은 두 가지 요인(충족감: 5문항/의미감: 5문항)으로 나뉘었다. 원래 척도에서는 6점으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서경현과 전경구의 연구(2004)에서처럼 7점으로 수정해서 평정(-3 = 전혀 다르다 ~ 3 = 매우 그렇다)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안녕이 .89, 그리고 실존적 안녕은 .86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다.

### 부정 및 긍정 정서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조명환과 차경호

(1998)의 정서빈도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빈도검사는 지난 1개월 동안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7점(1 = 전혀 없었다 ~ 7 = 항상 그랬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 4가지의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평정하는 이 검사는 본래 부정 정서로 공포, 화남, 슬픔 및 죄의식을, 긍정 정서로 애정, 기쁨, 만족감 및 자부심을 포함하였는데, 김정호(2007)의 연구에서처럼 공포를 불안으로, 슬픔을 우울로, 애정은 친밀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부정 정서 .65, 긍정 정서 .81이었다.

### 삶의 만족

참여자들에 삶에 만족하는 수준은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선행연구자들(조명한, 차경호, 1998)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김정호(2007)가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1 = 매우 반대한다 ~ 7 = 매우 찬성한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수준은 .86이었다.

### 주관적 행복

참여자들의 주관적 행복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피검자 자신의 상태와 관련하여 진술되어 있는 4문항을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수준은 .81이었다.

### 삶의 동기

웰빙에 삶의 동기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삶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WLS)를 김정호 등(2008)이 변형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전반에 걸친 동기의 강도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ideal)에 가깝다”라는 삶의 만족 척도 문항을 “나는 삶을 나의 이상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로 변형한 것이다. 본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수준은 .91이었다.

### 삶의 기대

삶의 기대도 웰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삶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 척도(SWLS)를 김정호(2007)가 미래의 만족에 대한 예상, 즉 전반적인 삶에서의 동기충족예상 상태를 측정하도록 문항을 변형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ideal)에 가깝다”라는 삶의 만족 척도 문항을 “앞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더 가까워 질 것이다”로 변형한 것이다. 본 척도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수준은 .96이었다.

## 결 과

### 종교여부에 따른 영적 안녕과 웰빙

우선 대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표 1. 대학생의 종교여부에 따른 영적안녕과 웰빙의 차이

변수	종교 없음 ( <i>n</i> =185)	종교 있음 ( <i>n</i> =189)	<i>t</i>
	<i>M</i> ( <i>SD</i> )	<i>M</i> ( <i>SD</i> )	
종교적 안녕	-6.14(9.95)	7.05(12.13)	-11.48***
충족감	4.69(6.07)	5.44(3.40)	-1.87 <sup>†</sup>
의미감	2.62(6.08)	2.96(6.84)	-.52
실존적 안녕	7.30(10.45)	8.76(10.85)	-1.32
<b>영적안녕</b>	1.16(12.85)	15.80(20.24)	-8.33***
삶의 만족	20.62(5.91)	20.84(5.83)	-.36
주관적 행복	19.81(4.59)	19.91(4.33)	-.22
부정정서	13.71(4.68)	14.70(4.51)	-2.08*
긍정정서	18.92(4.77)	18.60(4.65)	.67
삶의 동기	30.31(5.92)	30.74(5.80)	-.70
삶의 기대	28.15(6.89)	28.92(6.79)	-1.08

<sup>†</sup>  $p < .10$ , \*  $p < .05$ , \*\*\*  $p < .001$ .

여부에 따라 영적 안녕과 웰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교가 있다고 보고한 학생과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학생 사이에는 영적안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72) = -8.33$ ,  $p < .001$ . 그러나 그런 유의한 차이가 충족감이나 의미감을 포함하는 실존적 안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교적 안녕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했다.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종교적 안녕을 더 경험하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72) = -2.08$ ,  $p < .05$ .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부정정서를 더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주관적 웰빙 변인들, 즉 긍정정서를 포함해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행복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삶의 동기와 기대에서도 종교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종교를 믿는 방식에 따라 그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영적안녕 및 웰빙 변인 간의 관계

변인의 특성상 종교지향이나 종교적 원리주의와 영적안녕 및 웰빙 간에 관계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만으로 분석하였다(표 2 참고). 분석 결과,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의 종교지향은 종교적 안녕( $r = .74$ ,  $p < .001$ )은 물론 실존적 안녕( $r = .28$ ,  $p < .001$ )과 상관이 있었다.

표 2.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영적 안녕 및 웰빙 변인 간의 상관행렬(N=189)

변인	내적 종교지향	사회적 종교지향	자기이익 종교지향	외적 종교지향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M	SD
종교적 안녕	.79***	.11	.56***	.42***	.74***	.59***	7.05	12.13
충족감	.33***	-.12	.24***	.08	.26***	.09	5.79	5.40
의미감	.31***	-.10	.18*	.06	.24***	.16*	2.97	6.84
실존적 안녕	.36***	-.12	.24***	.08	.28***	.14	8.76	10.85
<b>영적안녕</b>	.67***	-.01	.46***	.29***	.59***	.43***	15.80	20.24
<b>삶의 만족</b>	.30***	-.06	.19*	.08	.24***	.21**	20.84	5.83
<b>주관적 행복</b>	.27***	-.07	.19*	.08	.22**	.13	19.91	4.33
<b>부정정서</b>	-.12	-.08	-.10	-.11	-.14	-.09	14.70	4.51
<b>긍정정서</b>	.29***	-.06	.24***	.12	.25***	.09	18.60	4.65
<b>삶의 동기</b>	.03	-.12	.12	.01	.03	-.16*	30.74	5.80
<b>삶의 기대</b>	.09	-.17*	.13	-.02	.06	-.11	28.92	6.79
내적 종교지향		.24***	.58***	.52***		.73***		
외적 종교지향						.43***		
<b>종교지향</b>						.70***		
M	41.20	10.88	17.22	28.10	69.30	-10.07		
SD	14.13	5.62	5.88	9.26	20.51	26.33		

\*  $p < .05$ , \*\*  $p < .01$ , \*\*\*  $p < .001$ .

내적 종교지향과 외적 종교지향 중에 자기이익 종교지향은 영적안녕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지만, 외적 종교지향 중에서 사회적 종교지향은 영적안녕과 상관이 없었다.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종교지향은 주관적 웰빙 변인들과 상관이 있었다. 종교지향은 삶의 만족( $r = .24, p < .001$ ) 및 주관적 행복( $r = .22, p < .01$ ), 그리고 긍정정서( $r = .25, p < .001$ )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내적 종교지향이 외적 종교지향보다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설명력이 강했으나, 종교지향은 주관적 웰빙과 단지 4~6% 가량을 공변하고 있을 뿐 이었다. 게다가 외

적 종교지향 중에 사회적 종교지향은 이런 주관적 웰빙 변인들과 유의하게 관계하고 있지 않았으며,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r = -.17, p < .01$ .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종교적 원리주의는 종교적 안녕과는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지만( $r = .59, p < .001$ ), 실존적 안녕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단지 의미감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r = .16, p < .05$ .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종교적 원리주의는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r = .21, p < .01$ ), 주관적 행복, 부정정서 및 긍정정서와과는 유의한 관

계가 없었다. 하지만, 대학생의 웰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삶에 대한 동기와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r=-.16, p<.01$ . 대학생의 삶에 대한 동기와 기대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 웰빙에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이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이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평정척도에서 중간정도였지만, 주관적 행복수준은 그것보다 높았으며 무엇보다 삶의 동기와 삶의 기대 수준은 그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내적 종교지향은 외적 종교지향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수준을 보였다,  $r=.52, p<.001$ . 이런 결과는 내적 종교지향과 외적 종교지향을 합하여 종교지향을 개념화 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적 종교지향( $r=.43, p<.001$ )보다는 내적 종교지향( $r=.73, p<.001$ )이 종교적 원리주의와 더 공변하는 부분이 많았다.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웰빙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종교지향과 대학생의 웰빙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절변인(B)이 독립변인과 작용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좌우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종교지향이 종교적 원리주의에 조절되어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먼저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를 차례로 투입한 후에 이 둘 간의 교차 항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웰빙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두 변인의 교차 항을 함께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 항은 두 변인의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것으로 구한 값을 투입하였다. 먼저, 웰빙 중에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의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종교지향은 종교적 안녕을 54.2%정도 설명하고, 종교적 원리주의를 추가하면 그 설명량이 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  $p<.05$ ),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

표 3. 영적 안녕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189)

투입 순서	예언 변인	준거변인: 종교적 안녕			준거변인: 실존적 안녕			
		β	F	R <sup>2</sup> 증가분	예언 변인	β	F	R <sup>2</sup> 증가분
1	종교지향(A)	.74***	221.05***	.542	종교지향(A)	.28***	15.96***	.079
2	종교적 원리주의(B)	.15*	114.82***	.010	종교적 원리주의(B)	-.10	8.54***	.005
3	A × B	.05	77.01***	.003	A × B	.32***	14.08***	.102

\*  $p<.05$ , \*\*\*  $p<.001$ .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임.

은 신과의 관계적 안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종교지향은 실존적 안녕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 p<.001$ ), 종교적 원리주의는 실존적 안녕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2$ 증가분이 실존적 안녕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beta=.32, p<.001$ ).

종교적 원리주의 상·하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실존적 안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F(1, 92)=2.48, n.s$ ),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실존적 안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93)=20.44, p<.001$ . 이런 양상은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높고 낮음은 중앙치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웰빙 변인 중에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종교지향은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설

명하지 못하였으며 종교적 원리주의를 추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도  $R^2$ 증가분이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지향은 긍정정서를 6.3%를 설명하였으며, 종교적 원리주의는 긍정정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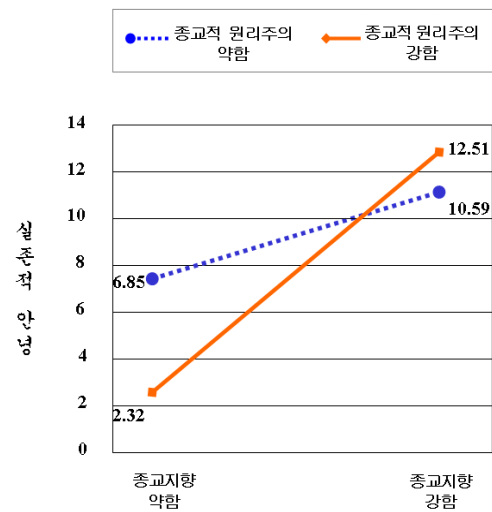


그림 1. 실존적 안녕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

표 4. 부정/긍정 정서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189)

		준거변인: 부정정서			준거변인: 긍정정서			
투입 순서	예언 변인	$\beta$	F	$R^2$ 증가분	예언 변인	$\beta$	F	$R^2$ 증가분
1	종교지향(A)	-.14	3.54	.019	종교지향(A)	.25***	12.53***	.063
2	종교적 원리주의(B)	.02	1.78	.000	종교적 원리주의(B)	-.16	7.67***	.013
3	A × B	-.17	1.53	.005	A × B	.19**	7.67***	.035

\*\*  $p<.01$ , \*\*\*  $p<.001$ .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임.

주의의 교차 항은 긍정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여 상호작용을 보였다,  $\beta=.19, p<.01$ .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긍정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이 강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긍정정서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하였다,  $F(1, 93)=21.93, p<.001$ . 이런 효과를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지향은 삶의 만족을 5.9%정도 설명하였으며 종교적 원리주의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2$ 증가분이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20, p<.01$ .

또한, 종교지향은 주관적 행복 수준도 5.0% 정도 설명하였으며, 종교적 원리주의가 추가적으로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내적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이 주관적 행복도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beta=.26, p<.001$ .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더니,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종교지향 수준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삶의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93)=7.21, p<.001$ . 그런 양상을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다. 주관적 행복에 대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그런 양상이 더 두드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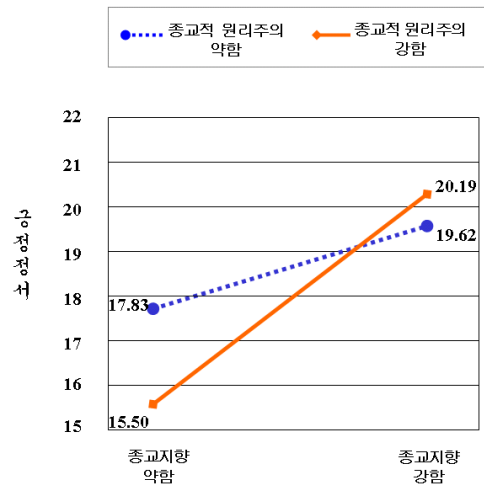


그림 2. 긍정정서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

표 5.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189)

		준거변인: 삶의 만족			준거변인: 주관적 행복			
투입 순서	예언 변인	$\beta$	F	$R^2$ 증가분	예언 변인	$\beta$	F	$R^2$ 증가분
1	종교지향(A)	.24***	11.69***	.059	종교지향(A)	.22**	9.80**	.050
2	종교적 원리주의(B)	.07	6.07**	.002	종교적 원리주의(B)	-.06	5.03**	.001
3	A × B	.20**	6.78***	.038	A × B	.26***	8.12***	.065

\*\*  $p<.01$ , \*\*\*  $p<.001$ .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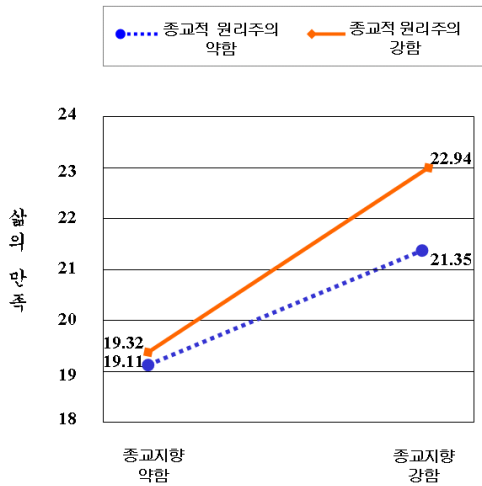


그림 3. 삶의 만족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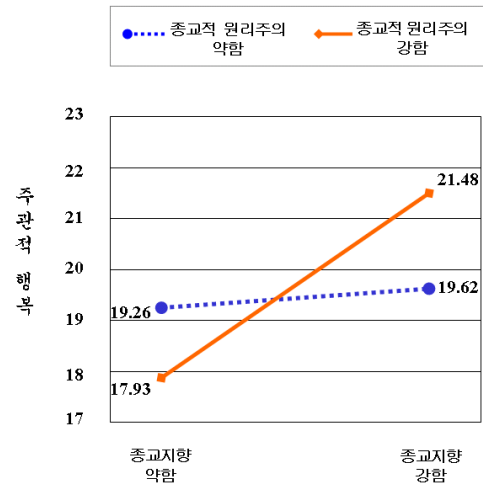


그림 4. 주관적 행복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

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주관적 행복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 $F(1, 92)=.12, n.s$ ),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실존적 안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93)=17.98, p<.001$ .

대학생의 웰빙에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삶의 동기와 삶의 기대도 준거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종교지향은 삶의 동기와 삶의 기대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종교지향에 종교적 원리주의를 추가하면 삶의 동기와 기대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게다가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2$  증가분이 삶의 동기( $\beta=.26, p<.001$ )와 삶의 기대( $\beta=-.26, p<.001$ )를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표 6. 삶의 동기와 기대에 대한 내/외적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189)

		준거변인: 삶의 동기			준거변인: 삶의 기대			
투입 순서	예언 변인	$\beta$	F	$R^2$ 증가분	예언 변인	$\beta$	F	$R^2$ 증가분
1	종교지향(A)	.03	.12	.001	종교지향(A)	.06	.58	.003
2	종교적 원리주의(B)	-.34***	5.87**	.058	종교적 원리주의(B)	-.28**	4.20*	.040
3	A × B	.26***	8.76***	.065	A × B	.26***	7.73***	.068

\*  $p<.05$ , \*\*  $p<.01$ , \*\*\*  $p<.001$ .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임.

단순주효과 분석(그림 5, 6 참고)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삶의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F(1, 92)=1.28, n.s.$ ),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삶의 동기가 강했다,  $F(1, 93)=12.80, p<.001$ .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삶의 기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종교지향이 강하면 삶의 기대 수준도 높았다,  $F(1, 93)=20.53,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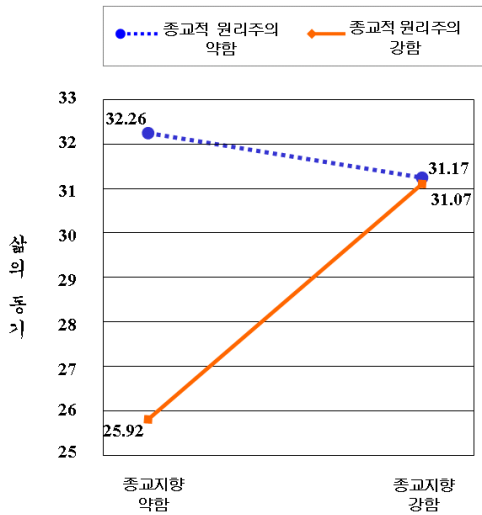


그림 5. 삶의 동기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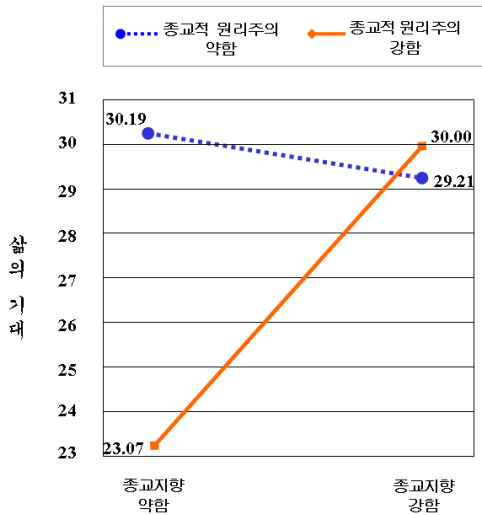


그림 6. 삶의 기대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탐색하며 두 변인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 간의 웰빙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 종교적 안녕을 제외한 다른 웰빙 변인에서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대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종교를 가진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종교가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Andreason, 1972; Piedmont & Moberg,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양면성을 탐구하는 차원으로 종교와 웰빙 간의 관계에서의 종교적 원리주의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중에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종교지향을 묻는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총 문항에 중간 수준으로 응답하였을 때 70점인데 비해, 이들의 평균 점수는 69.30에 지나지 않

아 중간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도 -10.07점으로 0점인 중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삶의 만족 수준도 중간 값의 총점인 20점을 갓 넘은 20.84점이었다. 하지만 삶의 동기와 기대는 중간 값을 훨씬 넘어서는 30.74점과 28.92점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의 평균 점수가 네 문항의 중간 값인 16점을 상회하는 19.91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김정호, 2009; Pavot et al., 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웰빙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이들은 당장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동기가 강할 경우 웰빙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개인의 종교지향이 영적 안녕 중에 신과의 관계에서의 안녕, 즉 종교적 안녕과 매우 밀접하게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한편, 내적종교 지향이 외적지향보다 영적 안녕과 공변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특히, 외적 종교지향 중에 사회적 종교지향은 실존적 안녕은 물론 종교적 안녕과도 상관없이 사회적 종교지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의미감이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종교적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대학생의 종교지향은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 그리고 긍정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그 관계는 강하지 않았다. Witter 등(1985)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에 상관계수가 .14~.25로 공변하는 부분이 적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삶

의 만족, 주관적 행복 및 긍정정서와 종교지향이 그 정도의 공변량을 보였다. 게다가 사회적 종교지향은 삶의 기대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런 경향은 대학생들의 종교지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 있고, 또한 그 연령대의 특징일 수도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에 상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Inglenhart(1990)의 연구가 이런 논리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두 변인 간에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연구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두 변인 사이에 조절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Ellis(2000)가 경계했던 절대적이고 융통성 없는 종교성과 Allport(1954)가 설명한 종교에서의 편견을 “종교적 원리주의”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Hunsberger 등(1996)과 Ellis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종교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과는 매우 밀접하게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지만, 삶의 동기와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삶의 동기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부적 관계는 종교지향으로 보정하였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종교지향으로 보정하였을 경우 삶의 동기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설명력이 5.8%에 이른다. 또한 이런 양상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에서도 나타났다. 종교지향으로 보정하면 삶의 기대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설명력이 4.0%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삶의 대한 동기나 기대 수준을 종교적 원리주의가 낮춘다면 한 개인의 인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결과만 보면 대학생의 종교지향이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고, 특히 종교적 원리주의는 웰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어 이 변인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 간의 인과관계가 오래 전부터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원리주의가 어떤 웰빙 변인들과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지향이 강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으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대체로 높았다. 그런 대학생은 긍정정서를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종교적 원리주의가 종교를 지향하는 수준이 높은 신앙인의 삶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순응하는 신앙이나 흔히 종교에서 세속이라고 부르는 비종교적 세상과의 융통성 있는 타협이 신앙인의 삶의 질, 즉 주관적 웰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이다. 종교지향이 강한 경우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으면 실존적 안녕, 즉 의미감과 인생에서의 충족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론에서 정의된 것 같은 종교적 원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에 맞는 종교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감을 느끼게 하고 주관적 웰빙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종교지향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높았을 때 발생한다. 종교지향 수준은 낮는데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하면, 다

시 말해 종교적 원리주의는 강한테 종교지향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 실존적 안녕, 긍정정서, 주관적 행복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원리주의가 높은 것은 하나의 종교만이 참 종교라는 것에 근거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종교지향이 약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나 생활에서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그런 상태가 긍정정서나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원리주의는 강한테 종교지향을 많이 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삶의 동기와 기대 수준이 크게 낮았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서의 웰빙은 차치하더라도 미래의 웰빙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대학생의 경우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나 삶의 기대가 웰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 가설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들은 융통성 없는 종교성이 종교를 믿는 신앙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보수적인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교적 원리주의는 그 자체로 웰빙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종교지향이 강한 사람들의 웰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단체의 현대화 혹은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젊은 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종교단체가 보수적인 태도

혹은 종교적 원리주의적 모습을 보일 때 만족 해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Allport와 Ross(1967)는 내적 종교지향보다 외적 종교지향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을 더 보이고 종교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내적 종교지향이 외적 종교지향보다 종교적 원리주의와 공변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외적 종교지향은 아니고 내적 종교지향만이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 긍정정서 등과 같은 웰빙 변인과 상관이 있었다는 것은 Allport와 Ross가 내적 종교지향보다 외적 종교지향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정한 것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사회적 종교지향이 웰빙 변인 중에 실존적 안녕과 삶의 기대와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는 점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종교지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혜숙과 최진호(199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종교적 모임의 참여수준이 주관안녕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모임의 참여나 그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사회적 종교지향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적으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종교적 모임을 갖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사회적 종교지향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그런 종교지향이 대학생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교지향과 웰빙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지만(김동기, 2007), 종교적 원리주의와 웰빙 간의 관계에서 인과의 방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

론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동기(2007)의 연구에서는 종교지향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도 유의하였지만, 종교지향과 웰빙 변인 간에는 양방향적 관계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본 수가 적은데다가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으로 추론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을 이어오는 것을 보면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들에서 종교성과 웰빙이 상관성이 낮게 도출되는 것에 대해 Andreason(1972)이 표현한 칼의 양날 중에 한쪽 날의 역할을 하는 조절변인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종교적 원리주의 외에도 또 다른 조절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지만, 추후에는 종교 별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의 경우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종교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수성과 종교 수용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기 (2007).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47-365.
- 김성민 (1998). *용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 김정호 (2000).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기 및 인지. *학생생활연구*, 16, 1-26.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정호 (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53-484.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건,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87-205.
- 김정호, 임성건, 김선주, 유제민, 서경현, 김미리혜, 공수자 (2008).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정서경험유형. *스트레스연구*, 16(4), 349-356.
- 김혜숙, 최진호 (1997).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41-60.
- 문화관광부 (1997). 청소년의 영혼과 종교세계의 식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서경현, 전겸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전겸구, 정봉도, 김영환 (2000). 생활스트레스, 영적 안녕 및 우울간의 관계.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3(1), 311-325.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 Allport, C. W. (195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Macmillan.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lt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 113-13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American Psychologist*, 47, 1597-1611.
- Andreasen, N. J. C. (1972). The role of religion in depress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1, 153-166.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Argyle, M., & Hills, P. (2000).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happiness and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0, 157-172.
- Armstrong, K. (2001). *The Battle for God: A History of Fundamentalism*. New York: Ballantine Books.
- Batson, C. D., & Ventis, W. L. (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 (1993).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in, A. E. (1980). Psychotherapy and religious val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5-105.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0-184.
- Brannon, L., & Feist, J. (2000). *Health psychology: An introduction to behavior and health*. Belmont: Wordsworth.
- Burris, C. T., & Jackson, L. M. (2000). Social identity and the true believer: Responses to threatened self stereotypes among the intrinsically religiou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257-278.
- Chamberlain, K. & Zika, S. (1989). Religiosity, life memory,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411-420.
- Chatters, L. M., Bullard, K. M., Taylor, R. J., Wodward, A. T., Neighbors, H. W., Jackson, J. S. (2008). Religious Participation and DSM-IV Disorders Among Older African American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n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6*, 957-965.
- Crawford, C. (1989). Ayurveda: The science of long life in contemporary perspective. A. A. Sheikh & K. S. Sheikh (Eds.), *Eastern and western approaches to healing: Ancient wisdom and modern knowledge*. New York: John Wiley & Son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nahue, M. J. (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400-419.
- Ellis, A. (1980). Psychotherapy and atheistic values: A response to A. E. Bergin's "Psychotherapy and religious val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635-639.
- Ellis, A. (1986). Do some religious beliefs help create emotional disturbance?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4*, 101-106.
- Ellis, A. (2000). Can REBT be effectively used with people who have devout beliefs in God and relig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1*, 29-33.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Frankl, V.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Gorsuch, R. L., & McPherson, S. E. (1989).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348-354.
- Gorsuch, R. L., & Venable, G. D. (1983). Development

- of an “age universal” I-E sca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2, 181-187.
- Hathaway, W. L., & Pargament, T. I.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423-441.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Idler E. L. (1987). Religious involvement and the health of the elderly: Some hypotheses and a test. *Social Forces*, 66, 226-238.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L. A. (1989).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In M. Lynn & D. Moberg (Ed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 (pp.1-31). Greenwich, CT: JAI Press.
- Kirkpatrick, L. A.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207-217.
- Lea, G. (1982). Religion, mental health, and clinical issu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1, 336-351.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ltby, J., Lewis, C. A., & Day L. (1999).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the frequency of personal praye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 363-378.
- Nielsen, S. L., Johnson, W. B., & Ellis, A. (200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ligious person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gament, K. (197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New York: Guilford.
- Peterson, L. R., & Roy, A. (1985).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49-62.
- Piedmont, R. L., & Moberg, D. O. (2003).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3. Boston: Brill.
- Pollner, M. (1989).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92-104.
- Reeve, J. (200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4th ed)*. New York: Wiley.
- Rosenstiel, A. K., & Keefe, F. J. (1983). The use of coping strategies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Relationship to patien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djustment. *Nursing Studies*, 32(5), 457-468.
- Ross, L. A. (1995). Spiritual dimension: its importance to patients’ heal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and its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2(5), 457-468.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Steinitz, L. Y. (1980). Religiosity, well-being, and weltanschauung among the elderl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 60-67.
-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 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 Wilber, K. (1997). *The eye of spirit*.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 Witter, R. A., Stock, W. A., Okum, W. A., & Haring, M. J. (1985).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논문투고일 : 2009. 09. 04

1 차심사일 : 2009. 10. 13

2 차심사일 : 2009. 12. 15

게재확정일 : 2010. 02. 05

## The Moderate Effect of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on Religious Orienta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Sung-Jin Chung      Chang-Ho C. Ji      Kyung-Hyun Suh      Shin-Seop Kim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a Sierra Universit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religious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are related to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interaction of religious orientations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on their well-being. The participants were 374 college students who studies at an university located in Seoul, whose average of age were 22.54 ( $SD=4.79$ ).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I/E-R,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Emotion Frequency Test,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ubjective Happiness Scale, Life Satisfaction Motivation Scale, and Life Satisfaction Expectancy Scale. Although religious students experienced more religious well-being than non-religious students, their subjective well-being were not higher than those of non-religious students. Results reveal that religious orientation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such as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and positive emotions, as well as spiritual well-being. However, those covariance was approximately 4 ~6% only. Religious fundamentalism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spiritu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motivation to live though. On the other hand, moderate effects of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on the relations of religious orientations to most of subjective well-being variables.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nalyse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who were strongly oriented toward religion with higher religious fundamentalis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xistential well-being, positive emotions,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and especially their motivation and expectation for future life, wherea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with lower religious fundamentalism by religious orient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some religiosity variables could affect human well-being with interactions

*Key words* :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fundamentalism, well-being, happiness, life satisfaction